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기 대졸 미취업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요구¹⁾

김진희 |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연구위원

요약

- **현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파는 불확실성, 복잡성,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며, 지속되는 고용 악화 및 경기 불안 속에서 청년들의 이행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거대한 조건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확장실업률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25.1%, 4명 중 1명이 미취업 상태임. 고등교육을 마친 이후에 각종 교육과 훈련, 자격증과 대외활동으로 높은 스펙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의 문은 좁아지고, 그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음.
- **문제진단** 4년제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은 사회의 인재로 나갈 준비를 마친 인력이며 국가의 인재 정책에서도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놓인 것은 국가적인 난제라 할 수 있음.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고용과 미래 계획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미취업 청년들은 사회적 연결망에서 소외되고 있음. 대졸 미취업 청년들은 경제적 요구, 취업, 일자리 등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자립과 삶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로서 다면적 생애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의 청년 유관 정책은 청년의 생애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정책제언** 급변하는 시대에 대졸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함(6대 영역, 20개 정책 방안, 53개 세부 개선 방안 및 전략). 구체적으로 첫째, 성인학습자로서 청년들의 요구에 기초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생애발달적 접근), 둘째, '당사자'로서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경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며(당사자 참여형 접근), 셋째, 사회 변화의 흐름과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해나가고 학습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종합적·협력적 접근), 넷째, 생애주기 관점에서 형식교육-비형식교육-무형식 학습의 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확충해야 함(단계적, 다층적 접근).

1) 본 브리프는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과제로 수행한 「포스트 코로나 맥락에서 대졸 미취업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요구」(김진희 외, 2021)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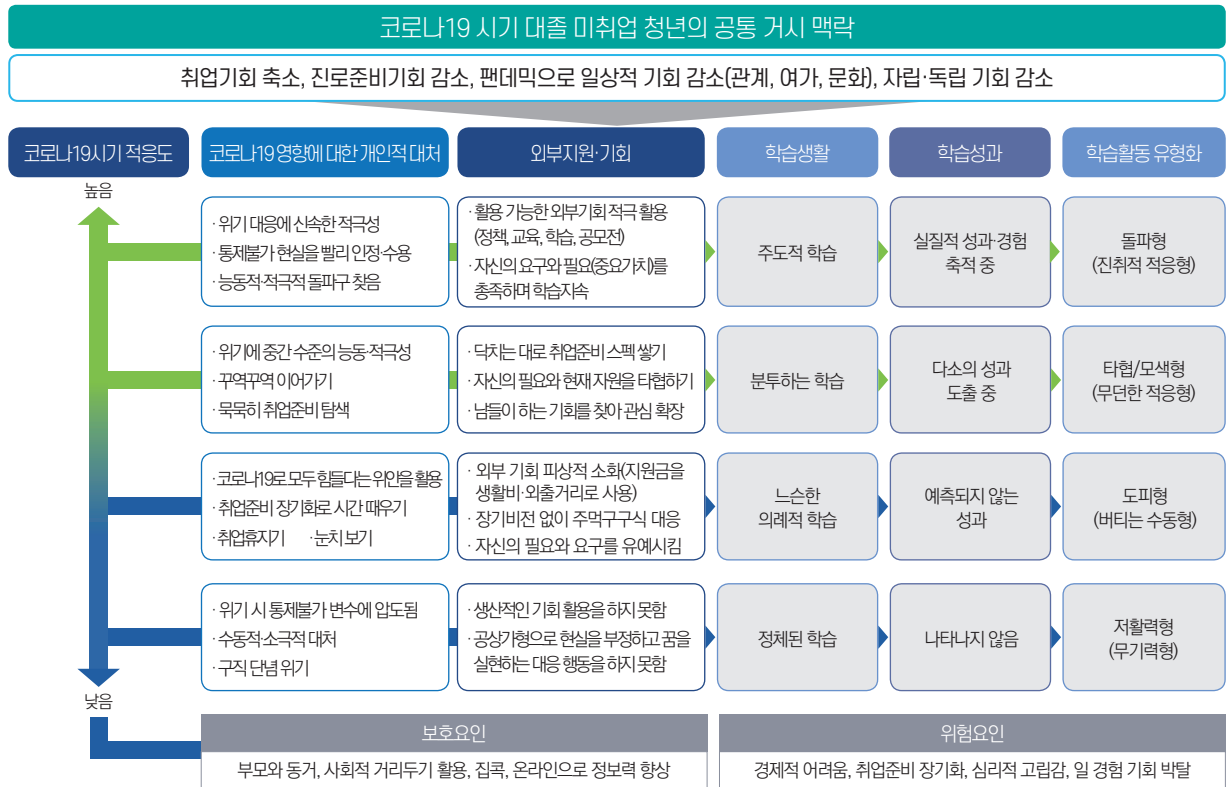
1. 들어가는 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고용 없는 성장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청년의 지위와 경제 활동 양상의 분화가 초래됨. 이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팬데믹에 의한 충격은 학교의 졸업과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에 놓여 있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거나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통계청이 발간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초기(2020년 1월~4월)에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2020년 하반기에 들어 청년 고용률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1년 1월 다시 한 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코로나19에 의한 청년의 경제활동 영향은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남.
-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도성을 가진 '성인학습자'로서의 전 생애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하는 사회 구성원임. 특히 저성장 시대에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이 학습 기회의 질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습의 끈마저 놓는 순간, 청년층 니트(NEET)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교육 외적인 취업, 진로설계, 사회적 관계망, 생활,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의 통합적 생애 성장을 위해서 평생교육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는 논점이 강조됨.

2.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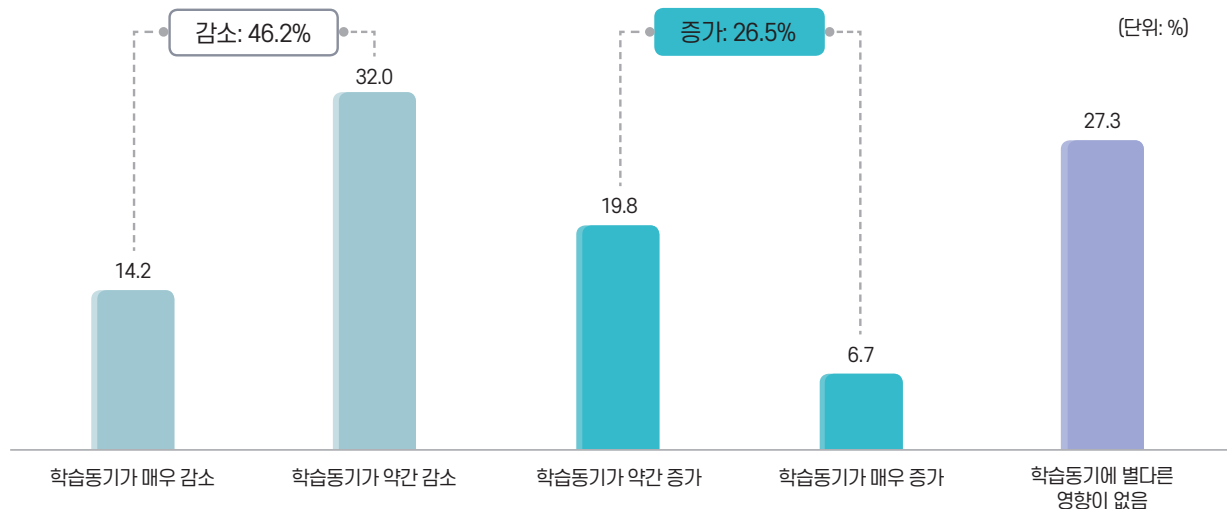
○ 질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대졸 미취업 청년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 양상

- 팬데믹 시기에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살고 있는 4년제 대졸 미취업 청년 30명을 만나고,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이들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를 타개하고 자신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를 비롯하여 자격증 등의 시험일정 연기와 변동,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자신의 취업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의 타격과 영향이 장기화하면서 변화한 삶의 양식을 대체로 적응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학교 혹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대졸 미취업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충격에 맞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치열한 학습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미취업 청년들의 대처와 반응, 학습생활의 양상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함. 본 연구에서는 돌파형, 타협·모색형, 도피형, 저활력형 등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쟁점과 특징이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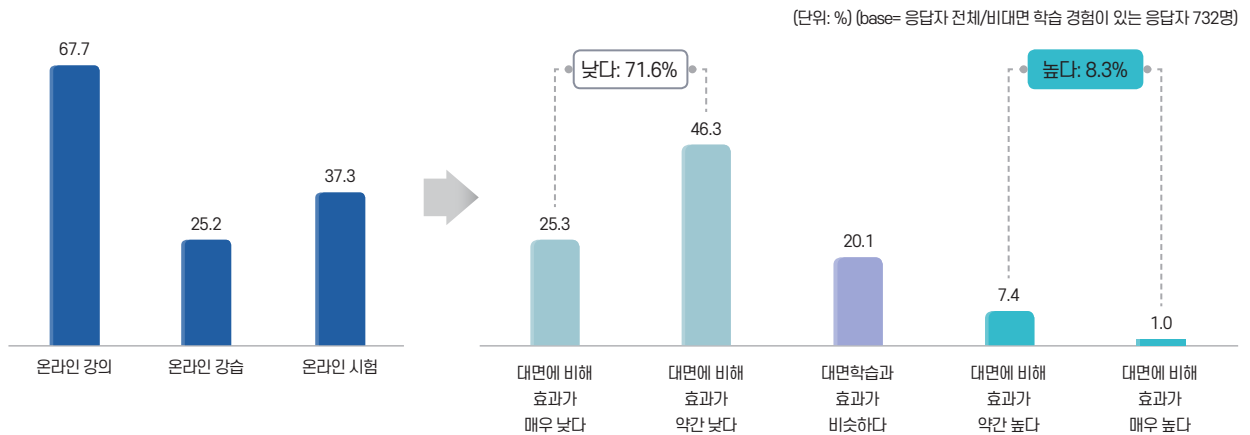
○ 양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코로나19 시기 대졸 미취업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요구 특징

- 코로나19 시기 대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1,079명 미취업 청년 대상 전국 단위 조사) 코로나19는 청년의 교육 및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동기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1]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자 중 2/3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비대면 학습이 대면 학습에 비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고 응답하였고, 대면교육이 중단된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1.4%로 나타남.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에 성인학습자인 청년을 위한 비대면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 학습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향후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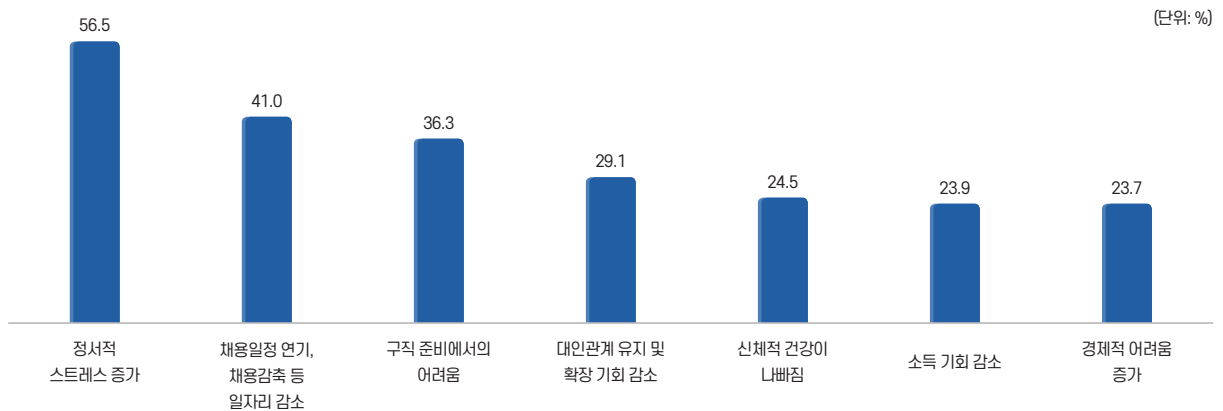
[그림 2] 비대면 학습 경험 및 효과

- 생애적 관점에서 청년은 성인기에 들어선 독립된 주체이지만, 대부분의 대졸 미취업 청년들은 여전히 부모 및 주변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46.7%의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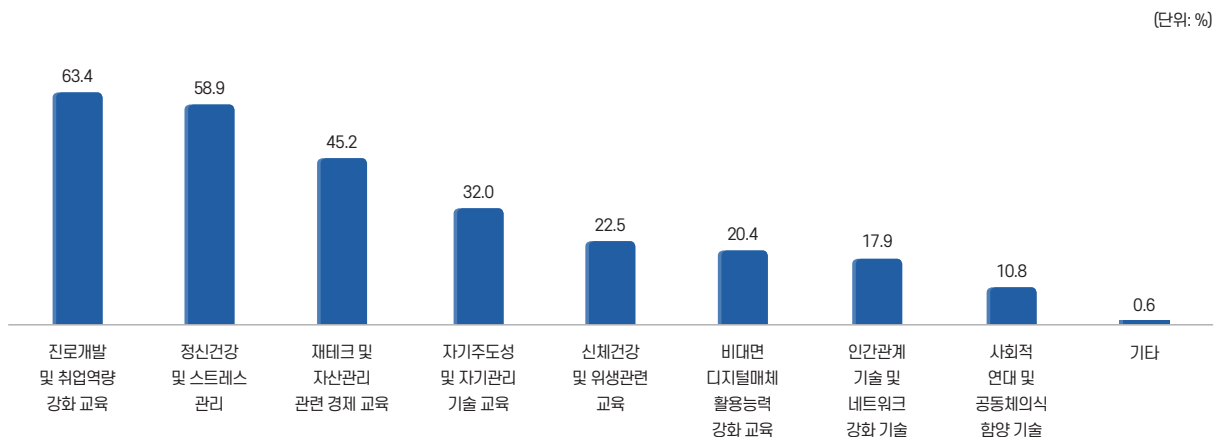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로 삶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 및 진로개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미취업 청년들은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를 선택하였고(56.5%), 특히 여성 청년들이 우울감을 더 높게 경험하는 성차가 발견되었음.



[그림 4] 코로나 이후 경험한 어려움(1+2+3순위, 상위 7순위)

- 미취업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63.4%)과 더불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58.9%)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남. 이는 미취업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방증함.



[그림 5]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복수응답)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타격은 청년층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관찰됨. 따라서 코로나19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상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타격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청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과 정교한 정책 개입이 시급함.

4. 향후 정책 방안과 시사점

○ 청년의 생애발달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

-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 등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에 청년들이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학습지원이 필요함.
- 향후 청년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책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주도적인 패턴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정책이 필요함.

○ 코로나19가 청년세대에 미치는 영향 및 포스트 코로나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 ① 코로나19는 이들의 학습, 사회진출, 소통과 교제, 독립 등의 발달과업을 사방에서 가로막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코로나19는 삶의 계획을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음.
 - ② 코로나19의 부정적 타격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컸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점이 발견됨, 이에 코로나19 청년세대 가운데 누가 코로나19의 충격에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 각 위험 요인별 맞춤형 개입을 체계화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 ③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비대면 학습은 대면 학습 부재로 인한 학습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었음. 따라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수단, 방법, 운영 방식 등을 어떻게 다원화하여 학습효율과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변화에 따른 전환적 역량이 요구하는 바, 이때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제언과는 별개로, '학습과 교육의 영역에서' 이들의 정서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자기관리 역량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⑤ 제2, 제3의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다양성만큼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과 정책 지원도 N배수만큼 고도화되고 다채로워져야 할 것임.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거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청년별 취업의사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둘째, 공급자 중심의 정부(중앙, 지방) 정책 위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셋째, 일자리 공급과 진로지원 중심의 관점에서 생애 진로목표로 접근해야 함. 넷째, 일,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대 청년정책 영역에서 교육은 역량 강화이므로 다른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청년정책 지원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 여섯째, 청년정책의 홍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다각화해야 함. 일곱째, 정책방안은 기본적으로 정책현황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과정을 다층적으로 거쳐서 개발되어야 함. 여덟째,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채용, 인사)의 변화와 국민들의 직업의식 전환도 함께 필요함.

○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 및 개선 전략

-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요구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며 생애에 걸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방안과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함.
- 향후 정책의 비전은 ‘뉴노멀 시대, 청년의 자기주도적 생애발달’로 설정되었고, 청년의 통합적 생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3대 전략(대학의 진로지원 강화, 생애역량 개발의 다각화와 맞춤형, 청년지원 인프라의 정교화와 내실화)하에, 6개 주요 영역(대학에서의 이행준비 영역, 사회참여 영역, 취업준비 영역, 생활자립 영역, 문화/인식 영역, 제도개선 영역)에서 총 53개의 세부 개선 방안 및 전략이 도출되었음.

